

지역 소식통

김제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단위당가 인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당가를 지난 1일부터 인상한다고 밝혔다.

원인자부담금이란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으로 나누며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은 건축행위로 인해 오수를 하루에 10톤 이상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를 말하고 타행위 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제2항 및 같은법 제35조제2항제2호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를 말한다.

현재 김제시의 개별건축물 원인자부담금 단위당가는 1,061,300원/㎡로 타시군 대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를 개선하고자 지난 1월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 실시용량이 부족하여 오수에 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 원인자부담금으로 공공하수도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시립도서관, 29일 여름 독서교실 운영

김제시립도서관은 오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5일간 지역 초등학생 2~6학년 25명을 대상으로 여름 독서교실 프로그램인 '책이랑 숲 여행'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독서교실은 숲을 주제로 자연과 관련한 책을 읽고 활동을 펼치는 방식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과 숲 생태 속에서의 생명 존중을 배울 수 있다.

운영 프로그램 내용은 소주제로 구성돼 '관계 형성과 숲 놀이', '감성을 깨우는 숲 놀이' 등이 진행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오는 8월 9일부터 김제시립도서관 아동열람실(☎540-4142)로 하면 된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 조성 속도

완주군-LH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기본협약 체결... 기관별 역할 분담·상호 협력 약속

완주군이 성공적인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2일 완주군은 전북특별자치도·완주군·LH·전북개발공사와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기본협약'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체결한 기본협약은 지난 2023년 7월 5일 체결한 상생협약을 기반으로 기관별 역할 분담, 상호 협력 및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

협약에 따라 군은 민원해소와 입주기업 유치 및 기반시설 조성 등 신속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업무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전북도 역시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LH와 전북개발공사는 내부경쟁투자 심사를 마무리하고 다음 절차인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번 8월까지 신청할

예정이다.

군은 예비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오는 2026년까지 국가산업단지 계획을 완료해 2030년 준공할 계획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이번 협약은 완주군이 수소산업 중심지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며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제시 검산동 성당지구, 새뜰마을사업 공모 선정

도시 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2029년까지 26억 투입

김제시(시장 정성주) 검산동 성당지구가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2025년 도시취약지구 생활여건 개조사업(이하 새뜰마을사업) 공모 대상지로 선정됐다.

새뜰마을사업은 지난 2015년부터 주거 취약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안전 확보, 주택정비 지원, 생활 인프라 개선, 주민역량강화 등 기본적인 생활 보장을 위해 국비 70%가 지원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검산동 성당지구는 성당, 상록, 소검산 3개 마을로 이뤄져 있으며, 도심권 내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으로 아파트가 신축돼 있지만 노후화된 주택의 밀집, 좁은 마을도로, 생활 인프라 부족 등으로 대표적인 주거 취약지이면서 동시에 지역공동화, 고령화 문제 등을 겪고 있는 등 생활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시는 검산동 성당지구 125,237㎡에 오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해 '마음을 나누는 행복한 성당지구'의 비전 아래 생활안전 환경 개선, 지역 맞춤형 주거환경정비, 자생하는 주민주도 공동체 지원 전략을 통해 안심마을조성, 주거환경 인프라 개선, 휴먼케어 및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 선정은 도시 취약지구 개선을 위해 지역구 이원택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행정적 관심과 협조를 비롯해 성당지구 주민들의 의지와 노력이 집결된 성과로 그 의미가 더 크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공모 선정을 통해 도심내 취약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거 생활 여건과 주민 생활의 새로운 활력의 바탕이 시가지 전체로 확산해 갈 수 있는 있도록 취약지역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 중기 활성화 위해 '머리 맞대'

완주산단기업 KHT 한국열처리와 소통간담회 개최... 애로사항 청취·지원방안 논의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머리를 맞댔다.

완주군의회는 지난 1일 (주)KHT 한국열처리 회의실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당면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박종광 전문관, 전북산업전문가협회 손미경 사무국장, 완주군일자리지원센터 고용지원단 정희순 팀장, 제태환 전 완주소방서장, KHT 한국열처리 생산부 권기찬 상무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우수한 혁신 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 청취하고, 기업 전반에 걸쳐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R&D 정부지원사업 규제 완화 △컨설팅 과제 개발 지원 확대 △의국인근로자 정주여건 확충 △

기업 역량강화를 통한 순순환 구조 정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들과 머리를 맞댔다.

작 등 현장 규제·애로를 건의했다.

이와 관련, 김 부의장은 집행부 관련 부서·기관과 협의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더욱 긴밀한 소통 채널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속히 해결하는 데 협력하고 앞장설 것

을 다짐했다.

김재천 부의장은 "완주군의회는 앞으로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김희옥 김제시 부시장 새로 부임

"공직자와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지낼수 있게 총력"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2일 김희옥 부시장이 새로 부임했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남원출신으로 지난 1991년 최초 임용돼 남원시 문화관광과장, 산업통상지원부, 전북도 관광총괄과장, 신재생에너지과장, 무주군 부군수를 거쳐 시에 부임하기 전까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을 역임했다.

김 부시장은 지난 1일 민선8기 2주년 기념식 이후 청사를 순회하며 직접 직원들과 소통행정을 실시해 호응을 얻었다.

김 부시장은 "김제시가 전북권 4대 도시로 융비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



김희옥 부시장

임을 다하겠다"면서 "공직자와 시민여러분이 행복하고 안전한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시장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출신으로 성원고등학교, 전북대 농업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기업애로해소지원단장을 역임, 기업유치, 기업과의 소통에 이바지해 왔다.

/김제=곽노태 기자

문성철 완주부군수 취임... 본격 업무 돌입

실과소 방문으로 업무 시작... 2022년 이어 두 번째 근무

제34대 문성철 완주부군수가 지난 1일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별도의 취임식을 생략하고 각 실과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업무를 시작한 문 부군수는 지난 2022년 7월 제32대 완주부군수로 부임한데 이어 이례적으로 두 번째 근무하는 완주부군수가 됐다.

문 부군수는 "민선 8기의 시작을 함께 한 완주군에서 다시 근무하게 돼 기쁘면서도 어깨가 무겁다"며 "누구보다 완주군의 비전과 목표를 잘 아는 만큼 민선8기 완주호의 순항을 위해 모든 역량을 발휘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어 "가파른 인구 증가세와 대규모 기업·투자유치를 통해 전북특자도 4대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 1등 경제도



문성철 부군수

시 달성을 목표로 하는 완주군의 발전을 위해 공직생활의 다양한 경험과 인맥을 살려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991년 공직에 입문한 문 부군수는 2022년 7월 제32대 완주부군수로 한 차례 부임했으며, 도 일자리민생경제과장으로 근무하다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 후 이번 7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완주부군수에 재임명됐다.

전임 조영식 완주군 부군수는 전북도 체육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완주=염재복 기자

완주군, 스마트밴드로 맞춤 건강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시작... 12일까지 선착순 80명 모집

완주군이 개별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시작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운동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팀이 스마트폰 앱과 스마트밴드(활동량계)를 활용해 건강, 영양, 운동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사업이다.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사용이 가능한 만 19세 이상 완주군민 및 완주군 내 직장인 중 보건소 최초 건강검진 시 질환을 보유하고거나 해당 질환의 치료를 위해 약물처방을 받지 아니한 자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스마트 밴드가 제공되고, 중도 탈락하는 경우 보건소로 다시 반납해야 한다.

참여대상자는 사업 시작일부터 총 24주간 모바일 앱을 기반으로 건강·영양·운동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받게 되며, 최초·중간·최종 보건소 방문검진을 통해 신체계측 및 혈액검사로 건강상태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서비스 참여 대상자는 총 80명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오는 12일까지 보건소 운동프로그램실(063-290-3005, 3066)로 신청하면 된다.

/완주=염재복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